폰트, 그래픽, 로고,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Embargoed until GMT 00:01, Wednesday, 27 December 2023***

***2023년 12월 27일 오전 9시(대한민국 시각 기준) 이후에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악의 기후재난은 하와이 산불, 1인당 피해 금액 4천 달러 이상**

**영국 자선단체 크리스찬에이드, 2023년 기후재난 20건의 경제적 피해 분석**

**경제 규모 고려하면, 기후 위기에 적게 기여한 국가가 더 치명적**

올해 일어난 기후재난 중에 하와이 산불이 1인당 피해 금액 측면에서 ‘최악의 기후재난’으로 조사됐다.

영국 비영리 자선단체인 ‘크리스찬에이드(Christian Aid)’는 27일 ‘2023년 기후재난 피해 비용 집계(Counting the Cost 2023: A year of climate breakdown)’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재난의 경제적 영향을 조명하기 위해, 올 한 해 전 세계에서 일어난 20건의 기후재난의 경제적 피해 규모 추산액을 해당 지역의 인구수로 나눈 보고서다.

보고서는 지난 8월 8일 발생한 하와이 산불이 1인당 미화 4161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일으켜, 분석 대상 20건 중 가장 큰 ‘1인당 피해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제적 피해 규모는 재난 대응 기관 등에서 집계한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했다. 때문에 실제 기후재난의 피해는 숫자로 표현된 1인당 피해 규모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하와이 산불 역시 총 181명의 사망자와 7695명의 피해자를 냈지만, ‘4161달러’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와이 산불 다음으로는 괌 태풍 ‘마와르’(5월 발생, 1455달러)와 바누아투 사이클론 ‘주디’와 ‘케빈’(3월 발생, 947달러), 뉴질랜드 ‘가브리엘’ 사이클론(2월, 468달러) 순으로 1인당 피해 규모가 컸다. 가뭄 중에는 4월 스페인에서 발생했던 가뭄이 1인당 50달러의 피해를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복원력이 약하거나 기후 위기에 취약한 농업 국가들에서 일어난 기후재난의 파급효과가 더욱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패트릭 와트(Patrick Watt) 크리스찬에이드 대표는 “기후위기가 극심해지면서, 거주지역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데 가난한 국가들이 더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가난한 국가들은 기후재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회복 자원도 적어 피해는 크고 복구는 더딘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1일, 아프리카 남부를 강타한 사이클론 프레디가 이를 잘 보여준다. 과거 말라위는 인도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사이클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통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34일간 이어진 프레디로 인해 말라위에는 몇 주새 1년 치 비가 내렸다. 국제 재난 데이터베이스(EM-DAT)에 따르면, 말라위에선 67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재민은 전체 인구(2000만)의 10%가 넘는 2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또한 집중호우가 홍수로 이어져 주택이 유실되고 물에 잠겼고, 도로와 교량은 물론 전력 공급 및 관개 인프라가 물에 쓸려 나갔다. 생계와 식량 공급에 필수적인 농작물도 유실됐다. 재난 구제 평가(Post Disaster Needs Assessment)에 따르면, 완전한 복구에 6억 8000만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말라위의 총 경제 규모가 130억 달러 중 5%에 해당한다.

누쉬라트 초두리(Nushrat Chowdhury) 크리스찬에이드 기후정의 정책고문은 “프레디는 기후 위기에 가장 적게 기여한 커뮤니티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부유한 국가들은 COP28에서 합의한 손실 및 피해 기금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  |  |  |
| --- | --- | --- | --- |
| 순위 | 지역 | 기후재난 | 1인당 피해 비용($) |
| 1 | 하와이/ 미국 | 산불 | 4161 |
| 2 | 괌 | 태풍 | 1455 |
| 3 | 바누아투 | 사이클론 | 947 |
| 4 | 뉴질랜드 | 사이클론 | 468 |
| 5 | 뉴질랜드 | 홍수 | 371 |
| 6 | 이탈리아 | 홍수 | 164 |
| 7 | 리비아 | 홍수 | 105 |
| 8 | 페루 | 홍수 | 66 |
| 9 | 스페인 | 가뭄 | 50 |
| 10 | 미얀마 | 태풍 | 41 |
| 11 | 칠레 | 홍수 | 39 |
| 12 | 아이티 | 홍수 | 36 |
| 13 | 멕시코 | 허리케인 | 35 |
| 14 | 칠레 | 산불 | 30 |
| 15 | 미국 | 태풍 | 25 |
| 16 | 중국 | 홍수 | 23 |
| 17 | 페루 | 사이클론 | 20 |
| 18 | 말라위 | 싸이클론 | 17 |
| 19 | 미국 | 태풍 | 16 |
| 20 | 페루 | 홍수 | 9 |

2023 최악의 기후재난들(출처: Counting the Cost 2023)